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본당주소: St. Leo Catholic Church, 221Hanford St. Columbus, OH 43206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 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 * 주일미사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 평일미사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성시간 :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 * 유아세례 :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
- * 병자봉성체 :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

본당소식

◆ 예비자 교리 안내

- 일시: 2/6 (토) 오후 3시부터
- 장소: 사제관 (St. Leo Church 내)
- 신청문의: 예비자 교리 신청서를 김정일 그레고리오(614-496-3149) 형제님에게 받으셔서, 작성후 사무담당(이호근 라파엘, (614-975-7732)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입교 예식 안내

- 일시: 2/7 (일) 교중 미사 중
- 장소: St. Leo Church

◆ 2010년 매일미사책 정기구독 신청안내

- 1년 구독료: \$40
- 신청방법: 김상욱 안토니오 형제님께 문의바람
- 전화번호: 614-218-1702

◆ 청년 협의회 안내

- 회장: 박필성(바오로)
- 부회장: 양희진(에말리아) 윤정환(스테파노)
- 총무: 이슬보라(엘리사벳)
- 서기: 김환 (스테파노)

◆ 교우금 및 기타 납부금 안내

- 장소: 사제관 1층, 본당신부 사무실
- 신자분들께서는 사제관 1층 정문 우측편 에 있는 본당신부 집무실에 있는 재정위 원들께 납부금을 내시면 됩니다.

◆ 연례회 모임 안내

- 일시: 1/24 (일) 주일미사 후
- 장소: St. Leo 사제관

◆ 전례 회의 안내

- 일시: 1/31 (일) 주일미사 후
- 장소: St. Leo 사제관
- 대상: 전례위원장, 성가대단장, 복사단장

◆ 성모회에서 한국 비디오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판매금액의 10%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09년 BAA(Bishops' Annual Appeal) 안내

-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5,700 이며,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5,180 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 성소 개발,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 참여하실 분은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보문의: 김성하 가브리엘 (sunghakim7@gmail.com)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23.00
교 우 금	\$640.00
BAA	\$100.00

- ◆ 교우금: 고상식, 김성일, 사윤진, 조주현, 최영자, 김상욱
- ◆ BAA: 이영수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

연중 제3주일 January 24, 2010



<초록색 하늘의 그리스도> 조르즈 루오, 1940~1948, 종이에 유채, 퐁피두 센터, 파리, 프랑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느헤미야기 6,2-4ㄴ
 “백성은 읽어 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화답송



주님 당신 말 - 씬 은 영이며 생명이시옵 니 다

제 2 독서 사도바오로 코린토 1서 12,12-30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사람 한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는 기쁜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

복음 요한 1,1-4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지향2)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지향3)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5,923단 34명
이호영	235단 3명	29,642단 218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단 명	7,460단 78명
김효임	단 명	1,171단 29명
기타	단 명	130단 3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235단 3명	22204-01/17/10(306주)

♣ 총누계: 224,540단 12,853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1/17/10	1/24/10	1/31/10	2/7/10
해설자	김오경	안유신	박귀영	고상식
독서/봉헌	김제준 구역	김효임 구역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증거자의 모후	하늘의 셋별	바다의 별	십자가의 모후

오늘의 성가

♫ 입당: 64 ♫ 봉헌: 216
 ♫ 성체: 174, 175 ♫ 파견: 34

눈먼 이에게 눈을

신희준 루도비코 신부 | 사제 평생 교육원

루카복음서 저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였는지를 오늘 대희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실현해주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언자가 메시야에 관하여 예언한 두 본문을 루카는 선택해서 하나의 본문으로 엮어서 제시 해주고 있습니다. 한 본문은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이사 61,1)이고, 다른 한 본문은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이사 58,6)입니다. 루카가 위의 두 본문들을 하나로 엮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 는 일이란 값비싼 희생제물이 잔뜩 있는 그런 제사를 많이 바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 다는 신앙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난과 억압과 구금을 감수한 이들을 위로해 주고 해방 시켜 주며, 병든 이들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루카는 치유가 필요한 병든 이들의 대명사로 “눈먼 이들”을 내세웠습니다. 귀가 먹거나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 양에 걸리거나 정신병을 앓는 사람이 아니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만 언급되고 있는 데, 눈먼 사람은 치유가 되면 눈을 떠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신체적 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대부분 눈으로 보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않기 때문에 자기 ‘눈’이 멀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에는 자기 안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불의가 저질러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는 알지 못하고, 또 그런 것에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일단 나만 괜찮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탐욕이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것 과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는 우리가 이렇게 ‘눈먼 이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안 내

- ◆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
 - 담당자: 이호근(라파엘), 김태형(T.아퀴나스)
 - 업무시간: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
 - 장소: 친교실, 재정 담당자 옆자리
 - 업무내용: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세례, 견진) / 각종 신청서 배부(유아, 견진, 혼인성사) / 판공성사표 배부(성탄, 부활) /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새로 오시는 신자분들) / 기타 사무업무
 - 새로 오시는 신자분들(체류기간 1년 이상)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을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신심단체에 가입하셔서,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

◆ 본당 신심단체 안내

	단 장	연락처
상지의 옥좌	안유신 레오	614-203-5046
증거자의 모후	이수정 베로니카	850-212-4548
바다의 별	김미영 타티아나	614-288-0907
하늘의 셋별	양희진 에밀리아	614-565-8430
로사리움 샤로네 성가대	윤혜경 엘리사벳	614-361-6018